

“AI시대 창의성의 원천은 다양성…생존·진화 중요 역할”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호남대 ‘교양아카데미’ 첫 강연
지속가능한 미래세대 위한 ‘생태적 전환’·‘실천’ 강조

“AI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핵심 가치로 ‘다양성’을 꼽으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꾸는 ‘생태적 전환’과 공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지난달 29일 호남대학교 상하관 1층 소강당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양아카데미’ 첫 강연에서 ‘거대한 연결 속의 호모 심비우스’를 주제로 강연했다.

최 교수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생명체의 본질적인 특성이지만,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뿐

아니라 협력과 공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며 생태계의 다양성이 생명체의 생존과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AI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 역시 다양한 생각과 관점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 지역이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미래세대가 기후변화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을 지금보다 더 자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모두가 함께 해결책을



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호남대 상하관에서 열린 ‘교양아카데미’에서 ‘거대한 연결 속의 호모 심비우스’를 주제로 강연하고 사진제공=호남대학교

찾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자연을 훼손해온 만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자연을 보존하고 다

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미래세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요?’라고 질문했다. 최 교수는 답변 말미에 학생에게 자신과 같은 생태학자가 돼 달라고 당부해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이어 호남대 이수영 교수의 작은 음악회 ‘아트살롱’도 열렸다.

‘공생의 소리’ 함께 울릴 때 완성되는 음악’을 주제로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가 어우러지는 공연을 선보이며 강연에서 다룬 ‘공존’의 의미를 음악으로 확장했다.

한편 호남대 교양아카데미는 최재천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국내 석학 6명과 함께하는 렉처 시리즈로 운영된다.

두 번째 강연은 오는 13일 서울대 김헌 교수를 초청해 ‘인공지능이 채울 수 없는 결핍, 고전의 지혜’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김시라 전남광주 농기센터 소장

‘합격률 3%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취득

김시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사진)이 제16회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분야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김 소장이 안전관리 전문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와 위험성 평가, 재해 예방 등에 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이 자격시험은 1차·2차·3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건설안전분야 시험 최종 합격률은 1차 대비 3%대로, 올해는 1차 시험에 5556명이 접수했고 최종 합격자는 185명이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자격 취득을 계기로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고, 농작업 재해 예방, 농업인 안전교육, 농작업 안전관리 상담(컨설팅), 농기계안전점검 등 지원 활동을 확대해 더욱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에 힘을 계속한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취득을 통해 농업현장의 안전을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직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특별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연장 개방

평일 오후 9시·토요일 오후 6시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구청장 신수정·사진)가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평일 야간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북구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간을 평일 오후 9시와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변화하는 주민 수요에 맞춰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대 개방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했다.

개방 공간은 27개 동 주민자치센터와 커뮤니티센터 내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으로 북구 주민, 마을활동가, 동아리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회당 최대 2시간까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공간을 이용하고 싶은 주민은 이용일 7일 전까지 공유 누리 시스템을 통해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북구는 단순히 공간을 개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동별 수요조사를 실시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신규 야간·토요일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야간·토요일 대관 시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과 자생 단체 대표, 통장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와 센터 운영에 투입되는 공직자들의 의견을 두루 경청해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주민 권리가 실현되는 북구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농협·광주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촌 일손돕기

농협광주본부가 농업·농촌의 공간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가을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교정당과 손을 맞잡았다.

농협광주본부는 최근 법무부 광주교도소 보라미봉사단과 함께 광주 북구 운영동에 위치한 화훼재배 농가를 찾아 ‘농심친실 같이행복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수확과 출하 준비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과 법무부 교정기관이 협력해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데 의미를 뒀다.

봉사활동에는 광주교도소 보라미봉사단원 10여명과 농협광주본부 임직원 5명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화훼 시설하우스에서 출하를 앞둔 국화 등 화훼류가 원활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잡초를 제거하고, 작업 공간을 가로막고 있던 폐하분을 수거·정리하는 등 농가의 일손을 보탰다. 특히 기계화가 어려워 작업자들이 일일이 손으로 처리해야 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었다.

농협광주본부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교정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농촌 일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무등산국립공원 원호사 지구 일원에서 서부지역본부와 무등산·무등산동부·내장산·내장산백암·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를 비롯해 공군 제8331부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부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산악구조대, 119항공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가을철 서부권역 국립공원 산불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국립공원공단 서부본부, 대형산불 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

국립공원사무소·공군부대·소방서·산악구조대·119항공대 등 참여
산불 대비 광역 진화지원체계 가동·관계기관 공동대응 역량 점검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본부장 김종식)는 지난 29일 무등산국립공원 원호사 지구 일원에서 기후재난으로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비해 국립공원공단과 공군부대, 소방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을철 서부권역 국립공원 산불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립공원공단과 소방·군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과 진화지원 지원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훈련에는 서부지역본부와 무등산·무등산동부·내장산·내장산백암·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를 비롯해 공군 제8331부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부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산악구조대, 119항공대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무등산 원호사 지구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조기 탐지를 시작으로 상황전파와 탐방객 대피, 초동진화, 권역 내 진화지원 지원, 지상·항공 합동진화까지 산불 확산 단계에 따른 관계기관 공동대응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육관수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광역사업부장은 “기후재난으로 산불이 대형화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탐지와 신속한 초동대응은 물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방·군 등 지역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해 대형산불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기후재난의 영향으로 2020~2025년 연평균 산불 피해면적은 2만3115ha로 2010년대(857ha)보다 27배 증가했으며, 대형산불도 연평균 1.3건에서 5건으로 약 4배 증가하는 등 산불이 대형·동시다발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산불이 대형화되고 피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산불 발생 초기부터 지역 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결집하고,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동대응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과학관, 제주와 인공지능 교육 연결… ‘AI 서브라운지’ 문 열어

제주시·서귀포시 2곳 운영
지역 현안 발굴·접근성 확대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최근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제주권 AI 서브라운지 런칭데이’를 열고, 제주지역 두 곳에 조성한 인공지능(AI) 체험·교육 공간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제주권 AI 서브라운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모두의 AI 라운지’ 거점 운영 사업의 하나로 조성됐다. ‘모두의 AI 라운지’는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 국민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AI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보고 지역 현안을 발굴하는 한편, AI 세트파의 지도 등을 지원한다.

전라·제주권 거점 운영기관인 국립광주과학관은 제주도민의 AI 교육·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서귀포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AI 서브라운지를 각각 구축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구 국립광주과학관장을 비롯해 어재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혁



국립광주과학관은 최근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제주권 AI 서브라운지 런칭데이’를 열고, 제주지역 두 곳에 조성한 인공지능(AI) 체험·교육 공간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제공=국립광주과학관

신지원단장, 김대영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김석주 제주항공우주박물관장 등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제주권 AI 서브라운지의 개소를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윤현정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교육실장의 사회로 개식 및 내빈 소개, 이정구 관장 개소 인사, 어재경 단장 축사, AI 서브라운지 소개 영상 상영, 기념촬영,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본사방문

- ▲배미경 전남광주특별시 대변인
- ▲황동현 전남광주특별시사회문화수석
- ▲최민성 전남광주특별시인문담당관(광주)
- ▲강성일 전남광주특별시홍보지원담당관(전남)
- ▲이유중 전남광주특별시보도총괄팀장
- ▲김효승 전남경찰청장